

정체성,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노두

박승규*

Identity, The Beginning Word of Explaining the Relation Between Humans and Space

Seung-kyu Park*

요약 : 이 논문의 목적은 정체성이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는 데 있다. 지리학은 지표위에 새겨져 있는 인간의 흔적에 관심 갖는다. 누가 왜 그와 같은 흔적을 남겼는지 탐색한다. 인간이 지표위에 남긴 흔적을 통해 존재에 대해 설명한다. 인간은 내가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해 지표위에 흔적을 남긴다. 인간이 새겨놓은 흔적은 그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는다. 우리는 그 흔적을 통해 이야기를 구성하고, 인간을 이해한다. 인간이 새겨놓은 흔적은 나의 정체성을 표현한다. 그 흔적에 담겨있는 이야기는 나만의 것이다. 자신만의 이야기로 구성된 정체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변화하는 정체성'과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이다. 변화하는 정체성은 차이와 다름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은 동일시와 같음을 통해 정체성을 구성한다. 하지만, 매일의 삶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나의 모습이 같은 듯 다른 모습이드이 정체성 역시도 생성과 반복의 과정을 통해 변화한다. 그렇기에 정체성은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 현재형이고, 진행형인 것이다.

주요어 : 정체성, 변화하는 정체성,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 이야기, 차이, 동일시, 인간존재

Abstract : This paper aims to reveal that 'identity' plays the crucial role of explaining the relation between humans and space. Geography is preoccupied with footprints of humans which are engraved on the ground. It explores why such tokens are left over. It explains the existence of humans through footsteps of them. Men leaves traces of themselves to notify that who I was and who we were. The traces left behind by humans contain narratives of their own. Through those narratives, the very men who left the traces on the ground are to be grasped. A trace engraved by a person expresses its own identity of representing that person, so the narrative contained by one trace is the narrative of that individual. The identify which is composed of its own narrative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wo types. The two are 'changing identity' and 'unchanging identity'. 'Changing identity' shapes the identity of oneself by difference. 'Unchanging identity' constructs the identity by identifying itself with sameness. However, as one's figure in everyday life becomes identical or different, identity also varies through processes of generation and repetition. Therefore, identity is currently changing and in progress.

Key Words : Identity, Changing Identity, Unchanging Identity, Narrative, Difference, Sameness, Human being

*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opos@cnue.ac.kr

1. 인간, 공간의 차이를 만든다

인간은 지리적 존재이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정한 공간을 점유한다. 그 공간에서 거주하고, 성장한다. 일생동안 단 하나의 공간만을 점유하는 것은 아니다. 태어난 곳과 자란 곳이 다르고, 지금 내가 거주하는 공간이 다를 수 있다. 내가 태어난 곳과 자란 곳, 그리고 거주하는 곳 모두 같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은 공간을 생산하기도 한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간의 생산은 아니다. 일상적 삶을 살고 있는 생활세계에 작은 흔적을 표시함으로써 나의 공간임을 알린다. 그 공간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낸다.

베르크(A. Berque)가 존재론에는 지리학이 없고, 지리학에는 존재론이 없다고 했다(김웅권(역), 2007). 존재론자는 공간에 새겨놓은 인간의 흔적에 무관심 했고, 지리학자는 공간에 새겨있는 흔적을 통한 인간이해에 무심했다. 힙합을 즐기는 사람이 벽에 새겨놓은 낙서그림은 지지분한 낙서에 불과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림 그리는 사람에게 낙서는 자신 그 자체이다. 낙서를 통해 새로운 공간을 생산하고, 세상과 소통하길 바란다. 하지만 우리는 애초부터 이 같은 낙서에 관심 갖지 않는다. 낙서그림을 그리는 사람과 보는 사람의 소통 부재는 흔적의 의미를 반감시킨다. 그들은 세상과 소통하고 싶지만, 일방통행로에 서있는 존재에 불과하다.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은 사람들의 삶을 폐허로 만들었다.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던 집과 일터가 사라졌다. 하지만 집과 일터만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 공간에 담겨있던 개인의 기억마저 앗아갔다. 그 공간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의미마저 황폐하게 했다. 지진과 해일로 무너져 내린 것은 삶터가 아니라, 그 공간에 거주하고 있던 인간의 삶이다. 지진과 해일로 잃어버린 것은 그 공간에 거주하고 있었던 존재 그 자체의 소멸이다. 그곳에 있던 나도, 우리도 모두 사라지고 없다. 내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곳에 있던 공간도, 시간도, 세계도 모

두 무너졌다. 공간의 소멸은 인간 삶의 소멸을 의미한다. 공간은 인간을 대변하고, 그것을 통해 인간은 자신을 확인받는다.¹⁾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공간은 인간의 삶 그 자체임을 보여준다(박승규, 2010a).

사람들은 한 공간에 정주하지 않는다.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근원공간의 부재를 경험한다. 인간의 유동성 증가는 동네에서마저 익명성이 나타나게 한다. 익명성의 등장은 동네와 도시의 과거를 없앤다. 미래마저 소거한다. 익명성은 마을 사람 간에 공유하는 과거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지금 여기'의 관계도 소홀하다. 자신을 드러내는 근원공간의 부재는 자아를 잃어버린 수많은 현대인을 생산한다. 나를 확인받을 수 있는 근원공간의 상실은 인간을 끊임없이 부유하게 한다. 나를 찾기 위한 여정도 없고, 나를 만들기 위한 고민도 없다. 그저 인간은 부유하고, 떠돈다. 근원공간의 상실과 부재는 우리의 실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박승규, 2010a).

지리학은 땅에(geo) 새겨있는(graphien) 것의 의미를 찾는 학문이다. 지표위에 누군가 무엇을 새겼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누가 왜 새겼는지를 살피고, 그것을 통해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이해한다. 지표 위 공간에 새겨있는 흔적을 통해 새긴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밝힌다. 그것을 통해 지리학이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학문임을 천명한다. 인간이 생산한 다양한 공간의 차이가 곧 나와 우리의 차이임을 설명한다. 지리학에서 인간의 정체성에 관심 갖는 이유이다.

지리학에서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어떤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정체성 문제를 다루는 논의(심승희, 1995; 이영민, 1999; 임병조, 2009; 조아라, 2009)와 지역정체성을 개념적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연구가 있었다(최재현, 2005). 시대에 따른 정체성 개념의 변화에 천착하여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다(임병조·류재현, 2007). 이 같은 논의는 지역정체성을 통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간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이해를 토대로 정체성과 공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것은 거의 없었다. 지리학이 인간의 존재론적 특성과 일상 공간에 새겨져 있는 흔적을 통해 어떻게 인간의 삶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이 공간상에 새겨놓은 흔적은 일종의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기억이다. 인간이 새겨놓은 흔적을 찾아 지리학자는 산책한다. 산책자(flâneur)로서 지리학자는 일상 공간을 구성하는 여러 사물과 기호에 담겨있는 다양한 기억과 욕망을 확인한다. 인간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가에 따라 같은 흔적에도 서로 다른 욕망과 욕구가 반영되어 있음을 파악한다.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의 특성이 생활양식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서로 다른 공간의 차이가 서로 다른 인간 삶의 표현임을 인식한다. 그렇기에 다양한 공간의 차이가 인간의 정체성의 차이임을 감지한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존재론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작업이기에 그것을 지리시간에 말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관이나 일상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에 주목한다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존재론적 논의는 구체성을 담보한다. 지리학은 구체성의 미학을 추구한다. 문화적 기억에 담겨있는 흔적을 통해 나와 우리를 이해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용하는 다양한 공간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간의 차이임을 알게 한다. 인간의 정체성에 천착하면서 다양한 차이의 공간이 인간의 차이임을 말하고 있음에 주목하려 한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통해 정체성이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노두임을 밝히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2. 정체성, 그 기원을 찾다

Locke는 정체성을 불변하는 동일한 인격으로 규정한다. Hall(1996)은 정체성을 우리를 둘러싼 문화 체계 속에서 재현되거나 다루어지는 방식과 관련하여 형성되고 끊임없이 변형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정

체성을 바라보는 관점의 다양성은 비단 이 두 사람만은 아니다. 고정된 실재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와 변화하고 진화하는 실재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정체성을 규정하는 두 관점을 형성한다. 정체성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그 기원에 근원을 두고 있다.

정체성(identity)을 의미하는 ‘identity’는 ‘같음’ 또는 ‘동일성’을 의미하는 후기 라틴어 ‘identitas’에서 유래한다. 이 라틴어의 어원은 영어의 ‘the same’에 해당하는 삼인칭 지시대명사 ‘idem’이다(양승태, 2006). 라틴어의 기원에 근거할 때 정체성은 ‘동일성’과 ‘같음’의 의미만을 갖는다. 하지만, 같음이나 동일성과는 다른 의미가 부여된 것은 ‘identitas’에 해당하는 희랍어 ‘tautotes’가 갖고 있는 의미 때문이다.²⁾ 이 희랍어는 ‘identitas’와는 달리 ‘자신’ 또는 ‘자체’를 뜻하는 말(ipse; self)과 ‘같다’를 의미하는 말(idem; same)이 포함되어 있는 ‘autos’에서 유래한다.³⁾ 결국 라틴어와 희랍어의 어원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정체성의 의미는 ‘동일성’과 ‘자신’을 표현하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의 정체성 개념을 Ricoeur의 표현을 빌려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윤성우, 2004). 하나는 ‘동일성(sameness)으로서의 정체성’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성(selfhood)으로서의 정체성’이다. 동일성으로서의 정체성은 ‘같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idem, sameness)에서 유래한다. 동일성으로서 정체성은 어떤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존재로 유지시키는 그 어떤 것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고유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손속시키면서 고유한 존재로서 자신을 지켜가는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무엇인가?’라는 보다 근원적 질문이 어울리는 정체성이다. 다수가 아니라 하나이자 유일한 것이라는 수적인 정체성, 극단적인 유사성으로 인해서 서로 대체될 수 있다는 질적인 정체성, 시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첫째 단계와 마지막 단계 간의 발달상에서 중단되지 않는 연속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포함된다(임병조, 2009).

반면에, 자기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자신’ 또는 ‘자체’를 뜻하는 용어(ipse, selfhood)에서 유래한다. ipse의 반대어가 ‘다른’, ‘이타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성으로서의 정체성은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차이’

와 '다름'을 전제로 하는 인간 개별자의 그 다름이다 (윤성우, 2004). 자기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정체성이다. 인간의 삶은 변화와 생성을 거듭한다. 인간의 삶은 하나의 시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진화한다. 그렇기에 인간 개개인이 갖고 있는 정체성은 근원적 물음인 '나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를 통해 변화하고 생성을 거듭하는 정체성의 양상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인간은 변화하고 그런 변화 속에서 자신을 유지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으려 한다.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차이와 다름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나타내며 유지하는 것이 '자기성으로서의 정체성'이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실존적 정체성의 문제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과의 관계속에서 나의 실존적 정체성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Ricoeur의 용어가 갖고 있는 생소함을 조금 더 일상적이고 친숙한 용어로 표현하기 위해 정체성의 양상을 새롭게 개념화하려고 한다. 정체성을 크게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Unchanging identity)'과 '변화하는 정체성(Changing identity)'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이 고유명사로서의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변화하는 정체성'은 동사로서의 정체성이다.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은 같음과 동일시에 가치를 둔다. 내가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의 정체성이 표현된다고 믿는다. 내가 한국 사람이고, 내가 가톨릭 신자라는 것이 곧 나의 정체성인 것이다. 나와 다른 누군가를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의 동일성으로 차이와 다름을 포섭한다. 하나의 보편적 기준으로 차이와 다름을 소거하는 정체성인 것이다. 반면에 변화하는 정체성은 '차이'와 '다름'에 가치를 둔다. Froust가 말한 것처럼 '현대의 작가는 모두가 유일한 작가이다'라는 말로 차이와 다름을 표현할 수 있는 정체성이다(강주현(역), 2010). 나타내며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공간을 생산하고, 그 공간을 통해 나타내며 드러내는 정체성의 양상이다.

정체성의 기원에 대한 논의가 정체성의 양상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서로 다른 정체성의 양상을 어떻게 상호연관 지을지도 고민

거리다. 변화하는 정체성과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이 완전하게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상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Ricoeur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정체성을 아우르는 새로운 개념으로 '이야기 정체성(narrative identity)'을 제시한다. 이야기는 변화하는 정체성과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 모두에 포함되어 있고,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Ricoeur가 주장하듯이 인간이 거듭되는 삶의 변화 과정에서 자신일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이야기 밖에 없다. 내가 탄생하고 죽을 때까지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나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이다. 내가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는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다. 우리 민족이나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모습은 우리 민족이나 지역에서 유통되는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이다(윤성우, 2004).

3. 이야기, 정체성을 드러내다

내가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인지는 문화적으로 구성된다. 어떤 문화를 소비하고, 어떻게 문화에 적응하며 살아가는가에 따라 나와 우리는 달라진다. 내가 갖고 있는 욕망과 개성에 따라 나를 표현하는 수단에 차이가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 기억에 따라 우리를 표현하는 방식 역시 다르다. 그렇지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 절에서는 정체성을 무엇으로 식별할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Relph는 장소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물리적인 환경, 활동, 의미를 제시한다. 그는 Camus가 오랑주에 대해 기술한 설명문을 통해 장소가 갖고 있는 정체성의 구성요소가 이 세 요소로 정리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세 요소는 다른 요소로 대체될 수 없고, 우리의 장소경험에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얽혀있지만, 장소 설명에 대한 뚜렷한 초점을 제공한다는 것이

다(김덕현·김현주·심승희(역), 2005). 반면에, Calvino가 쓴 『보이지 않는 도시들』에서 도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다. 마르코 폴로는 자신이 경험했던 많은 도시를 칸에게 설명한다. 보이지 않는 도시를 채우고 있는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기억이나 욕망, 가치나 신념이라고 말한다. 보이지 않는 도시여서 물리적 환경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고, 기억이나 욕망, 가치나 신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보이는 도시와 보이지 않는 도시가 갖고 있는 의미구조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Calvino의 주장 역시도 도시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일면 타당해 보인다(박승규, 2010b).

Relp와 Calvino의 사례를 보면, 장소와 도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는 사람마다 정의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물론 도시와 장소의 차이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도시와 장소라는 공간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는 가족유사성이 있어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에 커다란 차이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어떤 요소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인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모든 것에 공간이 담겨있고, 공간속에 모든 것이 담겨있다고 한다면, 정체성을 표현하는 요소는 어떤 한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없다. 공간속에 담겨있는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고, 모든 것 속에 담겨있는 다양한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앞에서 우리는 정체성의 양상을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과 '변화하는 정체성'으로 구분하였고, 그것을 아우르는 것이 '이야기 정체성(narrative identity)'이라 하였다.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나와 우리를 구분하는 정체성은 나와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내가 어떤 공간을 소비하면서 살아왔는지는 나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난다. 내가 세상에 존재하면서 나와 관계를 맺었던 많은 사람과 사물이, 기억이나 욕망이 그 이야기에 등장한다. 내 이야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이야기를 갖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줄거리는 다르다. 나와 다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다.

Ricoeur는 이야기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한다. 모든 것 속에 담겨있는 공간의 이야기를 말 할 수 있고, 공간속에 담겨있는 모든 것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이야기인 것이다.

이야기(narrative)⁴⁾는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역사학은 이야기 학문이다. 우리가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우리만의 역사를, 문화를 갖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 이야기임을 역사가 증명한다.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 온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 민족은, 우리 지역은 다른 곳과 구별되는 어떤 정신문화의 유산을 갖고 있는지 파악한다. 그와 같은 정신문화의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현재의 나와 우리가 어떤 맥락속에 존재하고 있는지 가능하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다른 민족과 다른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과 구별되는 우리만의 정체성이 있음을 확인한다.

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는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구조를 논하고, 본질을 논하는 '커다란 이야기(grand narrative)'가 아니다. 오히려 내가 일상 공간에 거주하면서 겪는 일상의 작고 소소한 것을 소재로 하는 '작은 이야기(petite narrative)'이다(이현복(역), 1992). 역사적 사건과 혁명을 담고 있는 커다란 이야기의 주체가 나일지라도 그와 같은 경험은 객관적 경험이고, 우리의 경험이기엔 나의 정체성을 대변해주지 못한다. 나의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것은 일상 공간을 구성하는 시시하고 하찮은 소재로 구성된 작은 이야기이다. 나의 생활세계에서 구성되는 작은 이야기는 어느 누구도 훔쳐 낼 수 없는 나만의 이야기인 것이다.

'굳 월 헌팅'이라는 영화에서 심리학 교수인 손은 월과의 대화에서 월이 갖고 있는 지식이 사실은 거짓이고,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은 객관적 지식을 잠시 월이 갖고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손은 월에게 말한다.

'내가 전쟁에 대해 물으면 너는 아마 셰익스피어의 명언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 다시 한번 돌진하세요, 친구여. 하며... 하지만, 넌 상상도 못해. 전우

가 도와달라는 눈빛으로 널 바라보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걸 지켜보는 게 어떤 건지...'

이 대사는 율이 책을 통해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몸을 통해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말 할 수 없는 손만의 경험인 것이다. 손은 자신의 아내에 대한 기억도 덧붙인다. 손의 아내는 이불 속에서 방구 끼는 습관이 있었고, 아내의 모습을 기억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모습이라 말한다. 어느 누구도 아내가 이불 속에서 방구 끼는 습관이 있는지 모른다. 그와 같은 아내의 습관은 일상을 같이하고 함께 하는 사람만이 들려줄 수 있는 작은 이야기인 것이다. 그것이 아내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 임금을 대신해 왕으로 살아야 하는 가짜 임금은 자신이 지금껏 살아온 것과 다른 삶을 산다. 가짜 임금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일상적 행동이다. 밥을 먹고, 매화 틀을 이용하고, 신하에게 말하는 일상적 행동이 진짜 왕과 다르지 않아야 한다. 신하 앞에서는 가능한 한 말을 삼가고, 행동을 삼간다. 진짜 왕과 가짜 왕의 차이는 커다란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왕이 말하는 습관이나 식사 습관 등 몸에 기억되어 있는 일상적 요소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한다. 나를 확인하게 해주는 작은 이야기의 부족은 가짜 왕이 진짜 왕이 될 수 없음을 증명한다. 나의 정체성은 이처럼 일상의 작은 이야기를 통해 확인되고, 각인된다.

Heidegger는 이야기가 인간의 실존적 조건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 말한다(Heidegger, 1962). 인간의 실존적 조건은 내가 어떤 요소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거기에 있는 존재(Dasein)'로서 인간은 어디에 놓여있는가에 따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실존적 요소가 달라진다. 인간이 어떤 실존적 요소와 관계 맺는가에 따라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는 다르다. 인간의 관계맺음의 방식에 따라 이야기는 달라진다. 같은 공간을 소비하고 있지만, 이야기의 줄거리가 달라지는 이유이다. 하나의 이야기가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Ricoeur가 이야기 정체성을 설명할 때 시간의 차이에 따른 정체성의 차이를 말한다(김한식(역), 2004). 하지만, 이야기 정체성은 시간의 차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Ricoeur가 주목하고 있는 시간의 차이는 공간을 전제한다. 공간은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시간의 변화에만 주목한다. 공간을 전제한 상태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이야기의 차이는 변화하고 있는 나와 우리를 파악하게 한다. 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는 시간의 변화보다는 공간의 차이를 통한 이야기의 차이에 의해 더 부각된다. 내가 살고 있는 공간과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의 기억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생산하고, 그것을 통해 서로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공간은 정체성이 확장된 영역이다. 공간은 나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나의 연장이다. 공간은 내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나만의 영토이다. 내 영토에서 생산된 이야기는 나만의 것이다. 내 이야기는 나의 문화적 기억을 토대로 한다.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일상적 소재가 내 이야기를 만든다. 나의 일상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사물 하나, 경관 하나에 담겨있는 문화적 기억은 이야기 줄거리의 소재가 된다.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이야기의 줄거리이다.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이야기의 소재 또한 나와 남을 구별하게 하고,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요소가 된다. 같은 공간에 거주하고,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도 같지 않다. 사람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기억하고 싶은 것이 다르기에 줄거리를 구성하는 방식이 다르다. 줄거리를 구성하는 이야기의 소재도 다르다.

이야기 정체성은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담는다. 이야기는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의 모습을 담기도 하고, 변화하는 정체성의 모습을 들려주기도 한다. 이야기는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과 변화하는 정체성의 상호연관성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이다. 또한, 양자 간의 구분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이기도 하다. 공간의 차이를 통해 인간의 정체성의 차이를 설명해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4. 정체성, ‘변화하는 정체성’과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으로 변이하다

1) ‘변화하는 정체성’과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 그 구분 준거는?

변화하는 정체성과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을 구분하는 준거는 무엇일까. 앞에서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과 변화하는 정체성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조금 언급되기는 했지만, 이 절에서 두 정체성을 구분하는 준거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변화하는 정체성과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은 대략 네 가지 준거에 의해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다.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서 그 차이를 볼 수 있다.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에서는 ‘내가 무엇이고(being)’, ‘우리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이 같은 물음을 통해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고민한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기에 그와 같은 정체성은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 반면에 변화하는 정체성은 ‘내가 누구이고, 무엇으로 되어 가느냐(becoming)’,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으로 되어 가느냐’를 묻는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 요소와의 관계 맺기를 통해 나의 정체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내가 어떤 공간속에 거주하고 있는가에 따라 나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인식한다. 그렇기에 내가 무엇으로 되어가고 있는 정체성은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무엇이라기보다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진행형의 정체성이고, 변화하는 정체성의 성격을 갖는다.

둘째, 개인적 정체성과 집단적 정체성의 문제이다. 개인적, 실존적 정체성은 외모, 연령, 성, 교육 정도, 특정한 형태의 사고, 감정, 행동 등 개인적 요소로 구성되며 개인이 기존의 가치, 규범, 전통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형태로 사회와 대결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어떤 가치나 규범을 수용하고, 거부하는가에 따라 개인적, 실존적 정체성은 변화한다. 반면에, 개인은 집단에 편입됨으로써 안전과 안정을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복수의 집단적 정체성도 존재한다. 집단

적 정체성은 여러 다양한 사회적 그룹(가족, 계층, 단체, 소수그룹, 민족 등), 지역적 그룹(마을, 도시, 지역, 국가, 대륙) 등에 의존해 있다(권혁준, 2012). 이와 같은 정체성은 개인적, 실존적 정체성을 흡수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변화하지 않는다.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은 동일시와 같음을 통해 집단을 통일적인 힘으로 이끌어야 하기에 기존의 정체성을 유지하려 한다.

셋째,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규정하기’도 하고, 집단에 의해 ‘규정받기’도 한다. 전자는 변화하는 정체성의 모습이고, 후자는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의 양상이다. 변화하는 정체성은 내가 나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내가 무엇이 되어 가느냐를 내가 결정한다. 조금 더 나은 나의 모습을 만들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반면에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은 우리가 무엇인지와 관련된 근원적 물음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을 흡수한다. 우리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집단적이고 통일적인 인식을 개인에게 부과한다. 내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는 궁금하지 않다. 개개인의 정체성은 동일시와 같음의 정체성으로 치환된다. 그렇기에 개인의 정체성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어떤 민족인 순간에, 내가 어느 국가에 소속된 순간에 나의 정체성은 규정된다.

넷째, 변화하는 정체성과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은 서로 다른 기원을 갖고 있다. Ricoeur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 변화하는 정체성은 자기성(ipse, selfhood)으로서의 정체성이고,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은 동일시(idem, sameness)로서의 정체성이다. 변화하는 정체성은 차이와 다름을 강조하면서 ‘나다움’을 지향하는 정체성이다. 인간 삶은 매일 생성과 소멸을 거듭한다. 그런 과정에서 내가 무엇으로 되어가고 있는나의 문제는 매일 유사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차이와 반복을 경험하면서 새롭게 규정해가는 과정을 취한다. 반면에,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은 동일시와 같음을 강조하면서 ‘우리다움’을 지향하는 정체성이다.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에서는 차이와 다름을 지향하는 개인의 정체성을 이미 규정된 동일한 정체성으로 흡수한

다. 이미 규정된 정체성의 양상에 개개인의 정체성을 맞추어야 하는 양상인 것이다.

2) 변화하는 정체성, ‘차이로서의 정체성’ (identity as difference)을 지향한다

변화하는 정체성은 차이와 다름을 지향한다. 변화하는 정체성은 ‘나는 무엇이 되고 있느냐(becoming)’의 문제에 천착한다. 내가 무엇이 되고 있느냐의 문제는 내가 지향하는 어떤 것으로 ‘되기’의 문제이고, 내가 무엇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다. 그것을 통해 나를 실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Deleuze에게 ‘되기(becoming)’는 무언가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이다. 되기의 주체인 나 자신에게 혹은 나 자신 속에 직접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변화가 ‘되기’이다(김효, 2008). 이진경은(2002) 되기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한다. 뱀권, 고양이권, 호랑이권, 학권, 박쥐권, 용권 등이 있다. 박쥐권은 박쥐가 가지고 있는 빠르고 음산한 ‘감응’을 자신의 신체에 부여하는 것이며, 호랑이권은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호랑이의 그 힘, 호랑이의 ‘감응(affect)’을 내 신체에 분포시킨다.

하지만, 용권은 어떠한가? 용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되기라는 것은 가능하다. 용의 감응을 내 신체에 분포시킴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Deleuze와 Guattari에게 되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감응’이란 심리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감성 혹은 정서가 아니다. 그것은 힘 혹은 에너지 차원에서 변화를 말한다. Deleuze와 Guattari는 되기는 되어진 동물에 해당하는 향이 없더라도 동물-되기로 규정될 수 있고, 또 그렇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되기’란 이와 같은 ‘감응’의 변이이며, 존재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변화인 것이다. Deleuze와 Guattari의 용어로 부연하자면, 되기란 분자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존재의 변화이다. 그들은 ‘몰적(molaire)’이라는 용어와 ‘분자적(molaiculaire)’이라는 용어를 구분한다. 분자는 물을 구성하는 요소이다.⁵⁾ 몰적인 차원은 거시 물리적 차원을 의미하며, 분자적 차원은 미시 물리적 차원을 뜻한다(김효, 2008).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는 거시 물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존재는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미시 물리적 차원에서 보면 형태는 사라지고 존재는 순전히 운동과 힘으로써만 정의된다. 인간의 몸은 거시 물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뚱뚱하거나 날씬 하거나 어떤 형태를 갖고 있다. 하지만, 미시 물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세포의 활동과 혈액의 움직임 등으로 규정될 뿐이다. 미시 물리적인 차원에 고정된 것은 없다. 그곳에서는 끊임없이 운동이 일어난다. Deleuze와 Guattari에게 형태적인 측면에서 ‘뭉기’는 모방이다. 힘의 차원에서 다른 무엇으로 변화되는 것이 ‘되기’이다.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단지 느껴질 뿐이다. 그렇기에 ‘감응’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생성 혹은 되기라 칭하는 것이다(김효, 2008).

변화하는 정체성이 갖고 있는 되기의 문제는 존재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정체성의 변화이다. 표피적으로 감지되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실존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변화이다. 내가 무엇으로 되어가느냐의 문제는 외형상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 다양한 사물과 기억, 욕망과 욕구 등과 관계 맺으며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하고 진화한다. 어떤 방향성을 갖고 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누구인가의 문제는 정태적인 문제가 아님을 확신하게 한다.

백석은 자신의 시 400여 편 가운데 공간에 관한 시 50편을 남겼다(유인실, 2012). 공간에 관한 50편의 시를 통해 백석은 자신을 드러낸다. 자신의 고향을 표현할 때의 백석과 서울과 만주를 표현할 때 백석은 다르다. 50개의 공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백석은 자신이 거주했던 공간에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서로 다른 표현양상을 보여준다. 시가 도시의 경관 차이를 기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백석 시에 등장하는 다양한 공간은 지속적으로 변해가는 백석의 정체성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단지 백석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적인 삶에서 경험한다. 내가 누

구로 되어가고 있는나의 문제는 내가 지금 어떤 공간을 소비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집에 있는 나, 직장에서 근무하는 나,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는 나는 서로 다른 나의 모습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내가 몸을 통해 부딪치고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일상의 작은 요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고, 그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 나의 정체성은 달라진다. 내가 무엇으로 되어 가느냐의 문제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Shields(1997)가 '나는 공간을 차지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듯이 기본적으로 인간은 공간내존재이다. 존재 'existence(ex/istence)'의 어원에 따르면, 인간은 내면으로 침잠해가는 자아 중심적인 특성을 갖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향한 외부지향성(ex~)을 갖는다. 인간 존재에 대한 모토는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밖으로 나가! 인식론적 주체가 되지 말고 윤리적 행위자가 돼라!"이다(정화열, 1999). 이 같은 존재에 대한 어원을 통해 본다면,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 자신을 형성하고 규정한다. 그렇기에 정체성 문제는 인간 내면으로 침잠하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공간과의 상호작용에 주목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 정체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인간은 같은 공간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을 살지만 똑같은 삶의 양상의 전개되지 않듯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과 관계맺는 양상에 따라 정체성의 양상은 차이를 반복하며 변이한다.

3) 변하지 않는 정체성, '같음으로서의 정체성'(identity as sameness)을 지향한다

모든 것이 같다는 것은 때때로 가장 최상의 원리처럼 생각되곤 한다. 같음을 추구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대립도 나타나지 않는 통일적인 힘을 상징한다. 또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힘을 표상하기도 한다. 동일하고, 영원하며 절대적인 하나의 원리는 자신과 다

른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두가 같아지는 방식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소통을 이룰 수 없다. 하나라는 영원하고 동일성을 갖는 힘은 유일무이한 진리를 등장시키고, 그와 같은 진리와 다른 종류의 것은 강제로 흡수하거나 미리 마련된 기준에 의해 소거시키는 방법을 동원한다.⁶⁾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은 내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물음을 지향하기에 변화하지 않는다. 나다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다움을 지향한다. 변화하지 않는 같음을 통해 변화하는 것을 동일성으로 포섭한다.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음과 동일성으로 다름과 차이를 희석시킨다. 그런 과정을 통해 동일하면서도 영원한 하나의 고유한 정체성을 구성한다. 이미 누군가에 의해 형성된 근원적인 정체성을 개인에게 강제로 부과하면서 영원하고 동일한 힘을 유지하기 위한 정체성을 만들어간다.

Marquez는 『100년 동안의 고독』에서 마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다. 이 마을에는 모든 것을 쉽게 망각하게 만드는 아주 해괴한 전염병이 돈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서 먼저 시작된 이 전염병은 차츰 마을 전체로 확산되고, 사람들은 아주 흔한 일상 용품의 이름조차 잊어버리게 한다. 이런 와중에 병에 걸리지 않은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모든 사물에 이름표를 붙여 사람들의 기억을 되찾아주고자 노력한다. '이것은 탁자입니다', '이것은 창문입니다', '이것은 젖소입니다. 매일 아침 젖을 짜주어야 합니다' 등등의 이름표를 달아 나간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마을의 이름은 마콘도입니다'라고 쓰고, 좀 더 큰 표지판에는 '신은 존재한다'라고 썼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물은 잊어 버려도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기억은 신에 대한 기억만큼이나 오래 남는다. 내가 나고 자란 근원 공간에 대한 기억은 쉽게 잊혀 지지 않는다.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공간은 나의 근원적 문제이기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물을 잊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모든 것을 잊어도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기억은 내가 누구인지를 대변해주는 것이기에 쉽게 잊을 수 없다. 마콘도라는 마을이 나를 대변해주고, 내가 마콘도 속

에 투영되어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같음으로서의 정체성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다. 서로 다른 내가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이 같음의 정체성이다. 내가 마콘도 마을에 살면서 우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때, 내가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같음의 정체성은 마콘도를 기억해야 한다. 나를 둘러싼 사물의 기억은 빨리 잊어도, 마콘도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가장 나중에 잊는다. 같음의 정체성은 그런 모습이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다움의 문제가 나를 규정함으로써 나는 잊혀 질지라도, 우리다움의 문제가 나다움의 문제를 대신하는 정체성인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다움을 지향하는 같음의 정체성은 변화하지 않는다.

민족정체성은 고유한 문화와 역사에 기반한 사회 정체성이며, 조상 대대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 집단에 대한 충성을 의미한다. 민족정체성은 내가 규정한 정체성이 아니라, 민족이 규정한 정체성이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으로 치환된다. 이 같은 민족정체성에 대해 Lefebvre는 민족정체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본다. 그들은 자신의 역사적 조건과 태생을 투사하여 상상 속에서 민족을 미화하며, 노동자와 부르주아 계급 간의 허구적 통합을 만들어내기 위해 민족이라는 허구를 만든다고 본다(양영란(역), 2011). 민족정체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정체성의 양상을 띠다면, 적어도 민족정체성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성한 정체성이라는 것이다.

권력적 주체가 생산한 민족정체성은 우리가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를 역설한다. 그것을 통해 개인의 차이와 다름을 같음으로 획일화한다. 민족이라는 개념적 범주에서 개인의 차이와 다름은 무가치하다. 오로지 권력이 규정한 민족정체성만이 가치를 갖는다. 그들이 규정한 민족정체성은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개인의 정체성은 소멸되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새로운 민족정체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대신한다. 나의 정체성을 내 스스로가 규정하기 보다는 무엇인가에 의해 정체성을 규정받는 방식의 정체성인 것이다.

망각은 존재의 소멸을 의미한다. 존재의 소멸은 공

간의 소멸을 동반한다. 망각은 과거의 기억에서 '나'라는 존재를 소멸시킨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들리지 않게 한다. 나는 그저 사물 가운데 하나로 존재한다. 기억이 상실된 인간으로서 나는 공간을 구성하는 부속물의 하나로 전락한다. 나를 부정하는 방법이다. 일상적 경험의 차원이든, 존재론적 차원에서든 공간에 새겨져 있는 나에 대한 기억의 소멸은 나에게서는 커다란 상실로 다가온다(박승규, 2011).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은 변화하는 정체성의 망각을 지향한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나브로 하게 잊어 가는 변화하는 정체성은 민족정체성을 구성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이다. 그와 같은 민족정체성을 통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권력을 유지하고, 부르주아 계급은 자신의 이득을 연장시키려 한다. 개인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규정받음으로써 무엇인가에 길 들여지기를 바란다.

5. 정체성, 동일성과 차이의 반복을 거듭하다

인간이 생산한 다양한 공간은 인간 존재의 다양함을 보여준다. 인간의 존재 기반은 공간이다. 그렇기에 다양한 공간의 차이는 다양한 인간의 차이를 반영한다. 공간에 새겨진 인간의 차이는 서로 다른 인간이 모여 살고 있음을 알게 한다.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나와 같은 공간을 소비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공간은 추상적인 존재의 논의를 구체화한다. 가시적이고 감각기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인간 존재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존재론적 논의를 관념적 차원에서 구체성의 차원으로 옮겨놓는다. 지리학이 존재론적 논의의 새로운 지평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이다.

공간은 존재의 연장이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 지금의 나를 대변한다.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통해 지금 내가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낸다.

공간에 새겨있는 흔적은 나의 정체성을 재현한다. 우리의 정체성도 표현한다. 공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정체성을 토대로 소통한다. 하지만, 정체성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다. 우리 삶이 변화하듯, 공간에 새겨져 있는 흔적도 변화하고, 소멸한다. 새로운 흔적이 생산되고, 그것을 통해 이전과 다른 나의 모습을 알린다.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정체성의 모습은 제한된 시공간의 맥락을 전제로 한다. 정체성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진화한다. 그렇기에 나의 정체성이라 표현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이다. 지금 여기를 벗어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지는 나 자신도 장담할 수 없다. 다만, 나의 공간적 실천을 통해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 있다.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공간의 변화는 나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준다. 변화하지 않을 것 같은 공간이 변화한다는 사실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 모습이 과연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인위적으로 규정된 무엇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역시도 시공간의 변화에 따라 인간의 삶이 변화한다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모든 정체성은 변화한다. 역설적이지만, 변화하는 정체성은 물론이거니와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도 변화한다. 변화하는 정체성이 차이와 다름을 지향하면서 변화한다면,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은 동일성의 반복을 통해 변화한다. 변화하는 정체성은 차이와 다름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은 같음과 동일시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그렇기에 두 정체성의 변화 양상은 다르다. 우리가 인식하는 정체성은 어제와 같은 차이와 다름이지만, 어제와 같은 동일성과 같음이지만, 오늘은 어제와는 다른 차이와 동일성의 반복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간다. 그런 점에서 모든 정체성은 현재형이고, 진행형이다.

인간이 생산한 공간이 비슷한 양상을 통해 반복하듯, 정체성 역시도 우리 삶의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통해 차이를 반복한다. 인간은 매일 같은 일상을 살지만, 늘 같은 모습으로 일상을 살지 않는다. 매일매일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일상적 삶을 이어간다. 매일같이 반복하는 삶의 모습이지만, 차이를 생산하고, 그것을 통해 매일 같은 일상적 삶을 영위한다. 차이를 전제로 하는 반복은 정체성이 매 순간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나도, 우리도 변화한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 Herakleitos가 말하는 판타레이(panta rhei)는 정체성에도 적용된다. 우리 삶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 그런 삶속에서 정체성은 생성되고 소멸한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나는 어제와 다른 나이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우리는 어제와 다른 우리이다. 나와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체성의 모습만이 존재한다. 과거의 정체성도, 미래의 정체성도,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파악할 수 있는 현재의 정체성도 모두 나이고 우리인 것이다. 그렇기에 정체성은 현재형이고, 진행형이고, 차이의 반복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간다.

주

- 1) 프레시안 책 소개 관련 기사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정확한 출처를 표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 생각의 기원이 그 책 소개자에게 있음을 밝힌다.
- 2) 그것은 희랍어 관사 ‘to’와 ‘self’ 또는 ‘same’을 의미하는 삼인칭 지시대명사 ‘autos’가 결합한 형용사 ‘tautos’의 추상명사이며,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8권 1061b에서 형제간의 우애(philía)를 부모와의 관계에서 동일성(tautotes) 차원에서 설명하는 과정에 나타나 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동일성 개념은 이 용어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니며, 그의(1933) 『형이상학』 10권(특히 1054a33-1054b4)의 ‘단일성(to hen; one)’ 개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to tautos(영어로 ‘the identical’에 해당)’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양승태, 2006).
- 3) 이 점은 독일어에도 해당된다. 영어의 ‘self’에 해당하는 ‘selbst’ 또는 ‘selber’는 ‘자신’과 더불어 ‘같음’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일 학계에서는 정체성을 의미하는 말로 라틴어 어원의 ‘Identität’ 대신에 순수 독일어로 ‘Selbigkeit’를 사용하기도 한다(양승태, 2006).
- 4) 리피르가 언급하는 이야기를 의미한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은 조금은 복

잡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영향을 받아 이야기의 시간성에 관심을 두고 있는 리피르의 이야기 구조를 자세하게 밝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생략하고자 한다. 이야기 구조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은 다음 문헌을 참고하길 바란다. 윤성우(2004), 폴 리피르의 철학, 서울:철학과 현실사.

- 5) 1몰은 6×10^{23} 개의 분자를 가르키는 단위이다.
- 6) 프레시안에서 책 소개 관련 기사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정확한 출처를 표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 생각의 기원이 그 책 소개자에게 있음을 밝힌다.

참고문헌

강주현(역), 2010, 휴머니스트를 위하여: 경계를 넘어선 세계 지성 27인과의 대화, 사계절, 서울 (Barloewen, C. V., 2007, *Le Livre des Savoirs: conversations avec les Grands Esprits de Notre Temps*, Grasset & Fasquelle, Paris).

권혁준, 2012, “독일 축구영화 <베른의 기적>과 집단적 정체성의 문제,” 카프카 연구, 27, 247-270.

김덕현·김현주·심승희(역), 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서울(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London).

김용권(역), 2007, 외쿠메네: 인간 환경에 대한 연구서설, 동문선, 서울(Berque, A., 2000, *Écumene: Introduction à l'étude des milieux humains*, Belin, Paris).

김한식(역), 2004, 시간과 이야기(Ⅲ), 문학과 지성사, 서울(Ricoeur, P., 1990, *Time and Narrative* (Ⅲ),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김효, 2008, “들뢰즈/가타리의 ‘되기’ 이론으로 살펴 본 장쥬네의 <하녀들>,” 한국연구학, 36, 227-262.

박승규, 2009, 일상의 지리학: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묻다, 책세상, 서울.

박승규, 2010a, “인문학으로서의 지리학과 지리교육,” 대한지리학회지, 45(6), 698-710.

박승규, 2010b, “광장, 카니발과 미학의 정치 공간,” 공간과 사회, 34, 60-86.

박승규, 2011, “인정,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쓰여지지 않은 공간을 발견하다,” 대한지리학회지, 46(6), 767-780.

박승규, 2012, “다문화교육에서 다문화 공간의 교육적 의미,” 문화역사지리, 24(2), 111-122.

서상문, 2010, “교육과정/교육현상의 구성을 위한 Ricoeur 이야기의 교육해석학,” 교육철학, 41, 301-347.

심승희, 1995, “역사경관과 지역정체성에 관한 연구: 전주시 한옥보존지구와 역사유적을 사례로,” 지리교육논집, 33, 43-73.

양영란(역), 2011,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서울(Lefebvre, H.,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Blackwell, Oxford, UK).

양승태, 2006, “국가정체성 문제와 정치학 연구: 무엇을, 어떻게,” 한국정치학회보, 40(5), 65-79.

유인실, 2012, “백석 시의 로컬리티 연구,” 건지인문학, 7, 207-238.

윤성우, 2004, 폴 리피르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서울.

이영민, 1999, “지역정체성 연구와 지역신문의 활용: 지리학적 연구 주제의 탐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5(2), 114.

이진경, 2002, 노마디즘, 휴머니스트, 서울.

이현경(역), 2007, 보이지 않는 도시들, 민음사, 서울(Calvino, I., 2002, *Le Città Invisibili*).

이현복(역), 1992, 포스트모던적 조건: 정보사회에서의 지식의 위상, 서광사, 서울(Lyotard, J F., 1979,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임병조·류제현, 2007, “포스트모던 시대에 적합한 지역 개념의 모색: 동일성(identity) 개념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2(4), 582-600.

임병조, 2009, “지역정체성의 구성과 제도화: 홍성신문에 투영된 ‘內浦’ 만들기,” 대한지리학회지, 44(1), 89-104.

정화열, 1999, 몸의 정치, 민음사, 서울.

조아라, 2009, “문화관광지의 문화정치와 정체성의 사회적 구성: 일본 홋카이도 오타루의 재해석, 제도화, 재인식,” 대한지리학회지, 44(3), 240-259.

최재현, 2005, “세계화시대의 지역과 지역정체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 한국도시지리학회, 8(2), 1-17.

Hall, S., 1996, Introduction: Who needs identity?, 1-17, in S. Hall & Du Gay (eds), *Questions of cultural identity*, Sage, London.

Heidegger, M., 1962, *Being and Time*, Harper & Row Pub-

lisher, New York.

Shields, R., 1997, Spatial stress and resistance: social meanings of spatialization, in Benko. G. & Strohmayer, U., *Space and Social Theory*, Blackwell, Oxford, 186-202.

Correspondence: Seung-kyu Park,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339 Seoksa-dong, Chuncheon 200-703, Korea (e-mail: topos@cnue.ac.kr, phone: +82-33-260-6425, fax: +82-33-264-3025)

교신: 박승규, 200-703,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339,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이메일: topos@cnue.ac.kr, 전화: 033-260-6425, 팩스: 033-264-3025)

최초투고일 2013. 6. 4

수정일 2013. 6. 17

최종접수일 2013. 6. 21